



◀ 신홍 SK뷰 야경  
▼ 단지내에 조성된 시냇물과 조형물



▲ 단지내 조성된 연못  
◀ 대나무숲 '브리즈가든'



▼ 단지 입구에 설치된 석가산



# 물의 정원, 대나무숲, 청정공기 요정이 살 것 같은 단지 속 세상

## 아파트의 미학(美學)

### 대전 동구 '신홍 SK뷰'

최근 핫한 대전 동구 신홍동 '신홍 SK뷰'.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대전 1호선 대동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3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신홍초와 충남중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신홍문화공원, 대동천 등이 위치해 있어 입주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 신홍 3구역에 재개발한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총 1588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31㎡ ▲51㎡ ▲59㎡ ▲74㎡ ▲84㎡ 등 모든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중소형 물량으로 구성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SK뷰'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새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했다. 입구에는 경사지형을 활용해 소나무와 석가산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경관을 만들었다.

단지는 대전 최초로 SK에코플랜트의 미세먼지 저감 특화 설계인 'SK VIEW 클린에어 솔루션'을 적용했다. 단지 내 통학버스 대기 공간에 공기청정시스템을 적용한 시설인 '클린에어 스테이션(Clean Air Station)'을 설치했다. 클린에어 스테이션은 H13급 고성능 HEPA필터를 적용한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어, 여름과 겨울에도 등하교 시 어린이와 보호자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한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엘리베이터 청정시스템과 365일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했다. 단지 조경 또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설계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조경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수종을 활용해 식재했다"면서 "회화나무, 소나무, 대왕참나무, 왕벚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심어 사계절 내내 꽃이 필 수 있도록 계획해 단지 내에서 풍부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신홍 SK뷰'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주차장을 없앤 단지 중앙에는 대표 정원인 '비오토피아 가든'이 설치돼 있었다. 5대 자연요소인 나무, 물, 바람, 돌,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정원에는 산과 계곡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석가산'도 조성돼 있었다.

단지 내에는 휴식공간이 조성돼 있었다. 인제이 숲, 패밀리가든, 왕벚나무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주민이 휴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입주민의 편의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있었다. SK에코플랜트는 시설의 바닥과 천장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시공했고, 창호는 미세먼지 저감 필터가 적용돼 이용자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창문을 열어 환기할 수 있다.

단지에는 지구를 지키는 행복한 놀이터란 컨셉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테마로 구성한 놀이공간이 갖춰져 있었다. '사랑을 나누는 프룻샵', '아빠, 나를 안아줘요(Huge me, Daddy)', '자이언트 판다 월드', '건강한 숲 속 생태 보고서'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구성돼 있었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도 보여줬다. 곤충과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과 돌무더기 등을 만들어 '육생 비오톱(인간과 동식물 같은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을 조성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